

정약용이 창작한 서정시들의 특징

김 금 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60페이지)

우리 나라의 고전문헌가운데는 18세기말—19세기초의 실학자 정약용(1762—1836)의 문집인 《여유당전서》도 있다.

총 503권으로 된 이 책에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대외관계, 자연 등 각 분야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서술되어있으며 그중 시문집만 하여도 87권에 달한다.

이 글에서는 《여유당전서》에 반영된 정약용의 서정시들의 특징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경기도 양주군의 량반집안에서 출생한 정약용은 당시 조선봉건왕조의 모순을 인식하고 봉건제도의 불합리한 측면들을 비판하면서 일련의 사회개혁사상들을 제기하였을뿐 아니라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고 통치배들의 가혹한 수탈행위를 폭로하는 등의 수많은 서정시들을 창작하였는데 그 수는 2 000여편에 달한다.

정약용이 창작한 서정시들의 특징은 첫째로, 붕괴되어가고있던 봉건사회의 참혹한 현실을 사실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정약용은 서정시들에서 19세기를 전후한 시기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예리하게 묘사하면서 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항의와 분노의 감정을 훌륭하게 형상하였다.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적성촌의 오막살이》, 《굶주리는 백성의 노래》, 《술 뿜는 노래》, 《승냥이와 이리》, 《슬프다, 양기를 끊었구나》 등을 들수 있다.

시 《적성촌의 오막살이》와 《굶주리는 백성의 노래》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심각한 시적체험에 기초하여 창작된 작품들이다.

시 《적성촌의 오막살이》는 봉건통치배들의 파렴치한 학정에 시달리는 당시 인민들의 눈물겨운 생활을 생동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먼저 농촌의 오막살이에 대한 외적묘사로부터 시작하여 억압받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에 초점을 돌리였다.

...

큰아이 다섯살에 기병으로 등록되고
셋에 난 작은애도 군적에 적혔다네
두 아이 군포제로 돈 닳냥 물고나니
죽기라도 원할판에 옷이 다 무엇이랴

...

시는 농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봉건국가의 가혹한 조세, 고리대와 군포제에 있다고 폭로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이 한집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정약용은 시 《굶주리는 백성의 노래》에서 《적성촌의 오막살이》의 주제와 사상을 한층더 부각시켰다.

앞부분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의 비참한 정상을 통치배들의 위선적인 행위와의 대비속

에 보여주면서 량반관리들의 반인민적정체를 폭로하였다.

《굶주리는 백성의 노래》

...

어진 정사를 하려고나 하였으랴
쌀을 주려고는 하지도 않았더라
관가창고엔 악한이 엿보이거니
어찌 우리들이 굶주리지 않을소냐
관가마구간엔 마소들도 살졌거니
이건 바로 우리들의 피땀이여라

...

여기에서는 굶고 헐벗어도 호소할데가 없는 농민들이 고을사또가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헛소문을 듣고 관가로 모여들어 개, 돼지도 마다할 죽을 받아가는 비참한 정상을 보여주면서 량반통치배들이야말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살진 도적이라는것을 분노에 차서 단죄하고있다.

시의 중간부분에서는 주제를 정론시의 형식으로 더 심화시켜 훨씬 강한 격조로써 통치배들을 고발하고있다.

만백성이 세상에 함께 태어났으나
여위여 빼만 남고 병들어 허덕이네
말라빠진 산송장인양 기진맥진 쓰러지고
길이란 길에는 류량민뿐이고나

...

엄숙하고 점잖다는 조정의 《헌신》들이아
나라의 운명은 경제에 달렸나니
억만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거늘
이들을 구원할자 바로 그대들이 아닌가

여기에서는 주검과 굶주림만이 차례지는 봉건사회의 숨막히는 현실, 인민들의 기막힌 운명을 생동한 화폭으로 재현하면서 통치배들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할데 대하여 촉구하고있다.

시에서는 굶주리는 류량민들의 처량한 신세와 통치배들의 부화방랑한 생활을 대조적으로 그려보이면서 봉건관료들의 알미운 심보와 그릇된 처사를 신랄한 풍자로써 묘사하였다.

시의 뒤부분에서는 량반통치배들을 풍자적형상으로 묘사하면서 백성들의 고통과 불행의 장본인이라는것을 명백히 확인하였다.

정약용은 시 《술 뽑는 노래》, 《승냥이와 이리》, 《슬프다, 양기를 끊었구나》에서도 봉건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전형적으로 묘사하였다.

《술 뽑는 노래》

백련사 서쪽 석름봉에서
중 한사람 싸다니며 술을 뽑네
어린 술씩 자라나서 겨우 두어치
약한 줄기 연한 잎이 귀엽기도 하였네

...

애술도 자라면 큰 소나무 되리니
화근을 뽑는데 그어이 게으르랴
이제부터 술 뽑기 술 심듯 하려니
잡목이나 남겨두어 겨울차비 하리라

《승냥이와 이리》

...

이리여 승냥이여
우리 삼살개 잡아갔으니
우리 닭을랑은 그만두어
사랑하는 자식마저 팔았는데
나의 안해는 사갈자도 없구나

네놈들은 나의 가족 벗겨가고
네놈들은 나의 뼈마저 부시누나
우리의 논밭을 쳐다보아라
그 얼마나 가엾은 형편이나

...

《술 뽑는 노래》에서 통치배들의 착취에 항거하여 심어놓은 소나무마저 뽑자고 하는 백련사 중의 형상, 《승냥이와 이리》에서 참을수 없는 분노에 몸부리치며 《승냥이와 이리》라고 절규하는 분격의 웨침, 《슬프다, 양기를 끊었구나》에서 차마 들을수 없는 비참한 사정을 호소하는 녀주인공의 모습과 같은것은 비록 무장을 갖추고 농민투쟁에 나선 군중으로 묘사되지는 못하였지만 인민대중의 항의와 분노의 감정을 보여주는 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정약용이 창작한 서정시들의 특징은 둘째로, 봉건통치배들의 부패상, 추악한 행위를 풍자적으로 반영한것이다.

정약용은 재치있는 비유와 강렬한 풍자적수법을 적용하여 통치배들을 적라라하게 묘사하였다.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호랑이사냥》, 《고양이의 론고장》, 《모기》 등을 들수 있다.

시 《호랑이사냥》은 범으로 인한 환난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범보다도 더 심하게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지방관리들의 포악성을 폭로한 작품이다.

원님 사냥 나온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웬걸 마을사람들은 도리어 질겁하네

장정들은 도망하여 제 자취를 감추고
늙은이들 할수없이 포로처럼 붙들린다
...

씨암닭 잡아내고 돼지삶아 튀하기에
온 마을 들끓으며 방아찢어 흰쌀밥짓고
초석깎아 대접하기 동네사람 넋을 잃네
...

여기서는 산 깊고 숲 짙은 산골에 호랑이가 설레여 백성들은 한낮에도 문단속을 잘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인데 고을원이 호랑이사냥을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온 마을이 질겁하는 내용과 호랑이의 환난을 없앤다는 구실밑에 깊은 산골에까지 찾아들어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봉건관리들의 전횡을 예리하게 풍자비판하고있다.

심심산골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고 흉칙한자들, 통치배들에 대한 비판은 시의 결속부분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주정을 통하여 더욱 두드러진다.

흉악한 관리놈들 밤중에 문 두드리면
아 소름끼치고 치가 떨려라
차라리 남은 호랑이 문간에 세워두고
오는 관리 막았으면

정약용은 《모기》, 《고양이의 론거장》 등의 서정시들에서도 어둠을 따라 찾아들면서 사람의 피를 빠는 모기, 잡으라는 쥐는 안 잡고 도리어 쥐와 한짝이 되어 나라살림을 헐어내는 간악한 고양이에 비유하여 통치배들의 부패상을 폭로하고있다.

정약용의 서정시들은 풍자적수법과 비유법을 잘 배합하여 통치배들의 죄행을 폭로단죄하고있으며 강한 주정으로 시의 호소성을 강화하고있다.

이처럼 정약용의 서정시들은 진보성을 가지고있지만 작가의 세계관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들도 가지고있다.

정약용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 봉건제도자체에 있다는것을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봉건왕권이나 량반제도, 통치계급자체를 부정하지 못하였으며 수탈과 전횡을 일삼는 개별적인 악질관리들을 비판하는데만 그치고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대변하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당대의 사회현실을 놓고 비판은 하고있으나 한갓 걱정이나 동정을 하고있을뿐 그것을 바로잡을 옳바른 방도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의 서정시들은 우리 나라 중세문학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고전문헌들에 반영되어있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옳바로 평가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